

석유화학, 2012년 영업전망 어둡다!

유럽 재정위기에 국제유가 하락 직격탄 ... 석유화학 중심이 문제

유럽 재정위기와 국제유가 변동으로 직격탄을 맞은 에너지·화학·철강기업의 영업실적이 추락했다.

유럽 재정위기로 에너지·화학기업의 영업실적 둔화가 예상됐지만 실제 발표된 2/4분기 영업실적은 우려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.

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, SK이노베이션은 2/4분기에 105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. 2003년 2/4분기(SK) 143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10년만에 적자로 전환됐다.

적자전환 대열에는 S-Oil, 호남석유화학, KP케미칼도 동참했고 금호석유화학(-89.5%), OCI(-74.0%), 유니드(-43.3%), LG화학(-35.1%), 삼성정밀화학(-17.3%) 등도 하락폭이 매우 컸다.

2011년까지도 일본 대지진 효과 덕분에 영업실적이 좋았으나 2012년 상반기에 중국 경기가 부진했고 국제유가가 30달러 가까이 하락하면서 재고 손실이 발생해 영업실적 추락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.

상장 화학기업의 2012년 영업이익 변동률

(단위: 억원, %)

회사명	연초	현재	변동률
한국타이어	8,164.46	9,793.85	19.96
제일모직	3,706.13	3,961.16	6.88
CJ제일제당	6,172.05	6,348.45	2.86
락앤락	1,154.83	975.74	-15.51
삼성엔지니어링	8,418.24	8,128.76	-3.44
녹십자	1,228.63	1,005.72	-18.14
고려아연	9,778.95	9,307.26	-4.82
삼성SDI	2,917.40	-4,050.67	38.85
삼성정밀화학		1,029.88	-
LG화학	32,545.72	21,722.66	-33.25
LG생명과학	170.60	54.33	-68.15
OCI	8,182.33	4,034.49	-50.69
금호석유화학	10,322.25	4,179.27	-59.51
SK하이닉스	11,144.93	3,139.93	-71.83
호남석유화학	17,358.05	6,731.69	-61.22
SK이노베이션	33,239.02	21,618.76	-34.96
S-Oil	20,600.59	10,551.38	-48.78
KP케미칼	2,442.85	1,001.33	-59.01

* 증권사 3곳 이상이 예상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작성
자료) 에프앤가이드

반면, 삼성전자는 2012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27조6355억원으로 연초 전망치 20조1358억원에 비해 37.2% 상향 조정됐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교보증권 김형렬 연구원은 “연초에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원유로 석유제품을 만들어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”며 “정유 및 소재 업종은 이익조정 불가피하다”고 주장했다.

철강도 힘든 시기를 보냈다.

포스코는 1/4분기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증가했지만 2011년보다는 39.0% 줄어들어 1조650억원을 기록했고, 현대제철(-20.1%), 현대하이스코(-3.91%)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.

영업이익이 증가한 곳은 고려아연(5.74%)과 풍산(0.48%) 정도에 불과했다.

반면,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2011년 2/4분기 3조7519억원에서 2012년 2/4분기 6조7241억원으로 79.2% 급증했다.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 장악력을 높인 때문으로 평가된다.

한편, 2/4분기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화학, 정유 주식에 대한 전망치도 반토막이 났다.

호남석유화학, 금호석유화학, S-Oil, SK이노베이션은 2012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최근 61.2%, 59.5%, 48.7%, 34.9% 내려갔다.

<화학저널 2012/08/07>